

朴 “무너진 중산층 복원” … 文 “새누리당 정권 심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틀을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제18대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17일 수도권에서 릴레이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몰이에 나섰다.

두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을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보고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쌍용동의 이마트 천안점 앞에서 유세한 뒤 오후에는 화성 개나리공원, 수원 지동시장, 군포 산본중심상가, 시흥 삼미시장, 광명 문화의거리, 부평역 광장, 고양 일산문화광장 등 경기·인

천지역 7곳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두루 훑는 일정으로 집중유세를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4·11총선에서 주로 야권이 석권한 곳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당시 이천·여주 등 경기 동부권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군포·시흥·광명·부평 등 서남권에선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천안 유세에서 “오로지 민생만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약속 대통령이 되겠다. 마지막 정치인생 모두를 다 바쳐서 국

‘최대 승부처’ 수도권 돌며 막판 표몰이 안철수 투표 캠페인 … 선거일 출국기로

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 저와 함께해달라”며 “저는 정치인생 15년 동안 숏한 위기를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 준비된 정책과 검증된 능력으로 이 어려운 민생의 위기를 이겨내고, 무너진 중산층 반드시 복원에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도 이날 낮 서울 여의도 우

체국 앞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사 유세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인천역과 김포 사우문화체육광장, 파주 교하중앙공원, 구리시장, 용인 이마트 죽전점, 화성 병점역 등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훑었다.

문 후보는 동인천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다. 박근혜 후보가 되면 권력 교대, 저 문재인이 돼야 정권교체가 맞다”며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 실패와 민생 파탄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막바지에 또다시 복풍을 일으키려는 못된 버릇, 이렇게 선거

를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내몰려하는 이런 작태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지켜주시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유세에 앞서 오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식’에 참석, 기존에 공언한 대통합내각 구성 및 국민정당 출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또 오후 유세에 앞서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개혁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한편, 문 후보 지인활동을 하고 있

는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이날 중도층 표심의 캐스팅보트이기도 한 경기 분당시, 서울 노원구에서 투표표를 돌려했다. 안 후보 측은 또 안 전 후보의 사진을 찍어 투표 독려 메시지와 함께 보내도록 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의 선거 캠페인을 이어갔다.

안 전 후보는 19일 오전 한강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찰, IP조사도 않고 “비방 댓글 없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 발표

경찰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컴퓨터 2대를 경찰이 정밀분

석한 결과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총 4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 수사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은 나오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그리고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여부는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컴퓨터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 등에 관한 조사 역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를 통한 댓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文 “국정원·檢·言 총동원 정권연장 기도”

여야 경찰 조사결과 발표 공방

경찰이 지난 16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7일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연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에서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권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에, 변화에, 희망에, 미래에 투표해 달라”며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국민은 변화를 선택했으며 새 정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네거티브 등 구시대적 혼탁한 선거로 도도한 역사의 불꽃기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민주당의 선거공작이 확인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박 후보와 문 후보가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인 직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면서 “이는 불법적이고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빛의만평

- 김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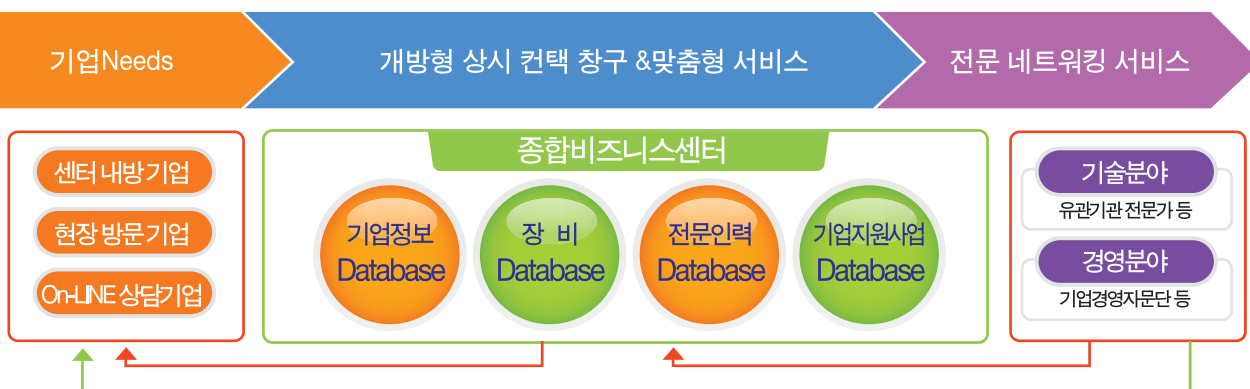
이게 우리정치 수준

첨단기술기업 성공의 허브

광주테크노파크 종합비즈니스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는?

-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인력·지원사업 DB를 제공해 드립니다.
-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코디네이터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진단과 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술·경영분야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 성장단계에 맞게 활용토록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본부동 1층
광주테크노파크 종합비즈니스센터

062)602-7212

www.gjtp.or.kr